

예견된 우울*

— 제르멘 드 스탈, 『루소에 대한 편지』

김 영 욱**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제르멘 드 스탈의 문학계 데뷔작 『루소의 글과 성격에 대한 편지』(1788)를 두 가지 쟁점을 통해 종합하는 것이다. 하나는 이론적인 것으로서, 비평가 조르주 플레가 묘사한 “비평적 의식”을 텍스트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더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학사적인 것으로서, “전낭만주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의 독서는 두 가지 결과를 도출한다. 첫째, “전낭만주의”에 대한 실증적 조사는 그 명칭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의 연속성을 사유하게 한다. 루소 비평가로서 스탈 부인은 감정과 이성의 종합이라는 계몽주의의 기획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사색과 우울”로 번역할 내적 필연성을 발견한다. 둘째, 이러한 개념적 전환은 근대적 비평가의 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장-자크 루소, 계몽주의, 낭만주의, 전낭만주의, 우울, 비평
Jean-Jacques Rousseau, Enlightenment, Romanticism, Preromanticism, Melancholy, Criticism

생을 통해 실행된다. 스탈 부인에게 해석의 혁신을 위한 조건은, 비평가의 존재가 그 혁신을 미리 체화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색과 우울”로 루소를 실험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스탈 부인은 그 자신이 우울한 존재방식을 선취한다. 따라서 비평가의 대상에 대한 “동일시”가 미묘한 것은 동일시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동일시가 아직 없는 것, 자신이 만들어야 할 것에 대한 동일시이기 때문이다. “비평적 의식”의 탄생은 낭만주의 초입의 이러한 아이러니에 기대고 있다.

1. 희망과 우울의 동시성

제르멘 드 스탈(Germaine de Staël)은 1813년 출판된 『독일론』(*De l'Allemagne*)에서 “물리세계”의 법칙처럼 작용하는 “인간정신의 두 경향”을 구별한다.

실제로 물리세계의 인력과 척력처럼 구별되는 인간정신의 두 경향이 있다. 그것은 쇠퇴의 이념과 완성의 이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어진 몇몇 좋은 증여에 대한 미련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몇몇 이득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완성가능성(perfectibilité) 관념과 황금시대 관념이 결합하고 뒤섞이면 인간은 상실로 인한 비애와 회복하겠다는 경쟁의식을 동시에 겪는다. 감정은 우울한데(mélancolique), 정신은 대담하다. 감정은 뒤를 돌아보는데, 정신은 앞을 내다본다. 이런 몽상과 도약으로부터 인간의 진정한 우월함인 관조와 활동, 체념과 의지의 혼합이 생겨난다. 이를 통해 인간은 현세에서 자신의 삶을 하늘에 결부시킬 수 있다.¹⁾

1) Germaine de Staël (1968), *De l'Allemagne*, t. II, Paris: GF Flammarion, pp. 259-260.

이렇게 “완성가능성”에 기초한 진보의 의지와 이념화된 “황금시대”의 상상적 상실이 불러일으키는 우울의 감정이 18~19세기 전환기 근대인의 내적 구조로 규정된다. 역사를 두 동강낸 프랑سخ혁명이라는 심연을 통과하는 의식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인 이 규정은, 또한 18세기 프랑سخ계몽주의의 상속자이자 18세기 말~19세기 초 낭만주의의 선구자인 스탈 부인의 역사적 지위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구조는 소설가로서 스탈 부인이 『델핀느』(*Delphine*)나 『코린느』(*Corinne ou l'Italie*)와 같은 허구세계를 건축할 때만이 아니라, 『문학론』(*De la littérature*)이나 『독일론』 등에서 역사 속 사유와 그 표현의 전개를 분석하고 비판할 때 비평가의 고유한 방법론 역할을 한다.

스탈 부인 연구에 삶을 바친 시몬 발레예(Simone Balayé)는 같은 인용문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스탈 부인 특유의 “상반되거나 보완적인 이항들의 연쇄”를 발견하고, 그가 낭만주의 세대에 보낸 가르침이 이런 이항들의 “결속”(alliance)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 발레예가 고심해서 고른 “결속”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용문을 다시 보며 주목해야 하는 요소는 두 번 등장하는 부사구 “동시에”(tout à la fois), 이항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결합”, “뒤섞임”, “혼합”과 같은 개념들, 그리고 이항들과 유사한 관계로 제시된 “인력과 척력”의 비유다. 과거에 대한 우울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내용상 대립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출현하는 사소한 성분들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립적 이항으로부터 인간의 “우월함”이 도출되는 것은, 그것들이 인간의 의식에서 동시적이고 보완적이며 결합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 Simone Balayé (1975), “À propos du «préromantisme»: continuité ou rupture chez Madame de Staël”, in *Le préromantisme: hypothèque ou hypothèse?* (ed. by Paul Vialaneix), Paris: Klincksieck, p. 164. 하지만 발레예는 스탈 부인의 가르침을 모든 낭만주의자들이 따른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상반되는 두 “경향”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스탈 부인에게 이 질문이 철학 그리고 “감각적 철학”(philosophie sensible)으로서 문학에 속한다면,³⁾ 스탈 부인의 역사적 지위를 묻는 관점에서 그것은 “전낭만주의”(préromantisme)라는 문학사적 개념과 관련된다. 프랑스 문학사에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이, 역사적으로는 혁명기 전후를 지시하는 이 문제적 개념은 이미 많은 검토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때 스탈 부인은 빠지지 않는 분석대상이었다.⁴⁾ 질문의 이런 복합적인 맥락은 다음 두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스탈 부인의 체계 안에서 이 결합이 고정된 원리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그의 사상적 여정에 따라 진화는 아니더라도 어떤 변모를 말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둘째, 스탈 부인에게서 문명을 분석하고 거기에 특정한 목적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 결합의 양상이 이후 낭만주의 세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 자신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묻는 것이다.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우리는 아직 어떤 성실한 답변도 내놓을 수 없고, 다만 조사를 시작해보려 한다. 연구의 대상은, 반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던 1788년 말, 익명으로 사교계에서 스무 권 남짓 배포된 후 곧이어 문학계의 이슈가 되고 영어로도 번역될, 스웨덴 대사와 결혼하여 스탈 부인의 이름을 얻고 채 2년이 되지 않은 스물두 살 제르멘 네케르(Germaine Necker)의 문학계 데뷔작 『루소의 글과 성격에 대한 편지』(*Lettres sur les écrits et le caractère de J.-J. Rousseau*)다.⁵⁾

3) Florence Lotterie (2004), “Madame de Staël. La littérature comme «philosophie sensible»”, *Romantisme* 124: 19-30.

4) 특히 다음 논문모음집을 보라. *Le préromantisme: hypothèque ou hypothèse?* (ed. by Paul Viallaneix), Paris: Klincksieck, 1975; *Une «période sans nom». Les années 1780-1820 et la fabrique de l'histoire littéraire* (dir. by Fabienne Bercegol, Stéphanie Genand and Florence Lotterie), Paris: Classiques Garnier, 2016.

5) 이하 본문에서는 “『루소에 대한 편지』”로, 각주에서는 “*Lettres sur Rousseau*”와

왜 『루소에 대한 편지』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일차적으로, 이 짧은 텍스트는 말년의 『독일론』이 확인하는 이중적 지향성의 구조가 스탈 부인의 일관된 체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탈 부인이 보기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인간들의 관념의 진보”⁶⁾를 추적하고 증명한 철학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원과 투명한 소통의 상실을 자신에 대한 “보편적 증오”⁷⁾로 경험한 불행한 인간이었다. 이때 루소에 대한 “찬사”(éloge)를 작성하고자 하는 스탈 부인에게, 관건은 두 가지 사유, 두 가지 기질의 결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울(mélancolie)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운명을 오랫동안 천착하는 것이 가능한가?”⁸⁾ 따라서 루소의 사유는 스탈 부인의 지적 여정에서 희망과 우울의 첫 번째 “결속” 양식이다.

게다가 루소야말로 문학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낭만주의” 작가라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낭만주의의 기원을 18세기에서 찾으려는 문학사가들은 루소의 소설 『신 엘로이즈』(*La Nouvelle Héloïse*)와 자서전 『고백』(*Les confessions*),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L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이 유럽의 정신세계에 끼친 심오한 영향에서 시작하곤 했다. 그런데 이들은 합리주의적인 고전주의를 프랑스의 표준적 미학으로 고정시키려는 반대진영의 도식에 민감한 나머지, 루소의 역할을 “감각적 영혼의 스승”⁹⁾에 한정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쪽수로 표기한다. 서지사항은 아래 “참고문헌”을 보라.

- 6) *Lettres sur Rousseau*, p. 46.
- 7) *Lettres sur Rousseau*, p. 103.
- 8) *Lettres sur Rousseau*, p. 103.
- 9) 이 표현은 앙드레 몽글롱(André Monglond)이 1930년 펴낸 두 권짜리 『프랑스 전 낭만주의』의 2권 전체를 루소에게 바치며 붙인 부제다. André Monglond (1969), *Le prérromantisme français, t. II, Le maître des âmes sensibles*, Paris: José Corti. 기원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낭만주의의 프랑수아지 기원을 옹호하는 대표적 인 학자 다니엘 모르네(Daniel Mornet)는 1912년 『18세기 프랑스의 낭만주의』

스탈 부인은 멀리 1948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¹⁰⁾ 루소에게서 “논리와 웅변(éloquence), 정념과 이성 등 설득방법들의 놀라운 결합”¹¹⁾을 발견한다.

따라서 스탈 부인에게 장-자크 루소는 두 가지 쟁점을 지시하는 이름이다. 제네바시민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에 대한 상실감이 사유와 문체 그리고 “성격”에서 결합되어야 하는 한 가지 필연성을 입증하며, 이런 한에서 스탈 부인이 재구성하는 루소는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로 가는 이행기가 두 시기를 대립이나 모순이 아닌 어떤 식으로든 예견된 종합의 차원에서 연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은 루소에 대한 스탈 부인의 “동일시”의 수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문학사에서 『루소에 대한 편지』의 의미를 발굴한 것은 소위 제네바학파의 조르주 폴레(Georges Poulet)가 제시한 1971년 연구였다. 그에게 스탈 부인 비평의 현대성은, 해석주체의 의식과 대상작가의 의식 사이의 공명과 공감을 비평의 일차적 경험이자 토대로 놓는 적극적 태도만이 아니라, 이러한 동일시를 단순한 반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비평적 의식”이 행하는 거리두기의 부정적 태도까지 포괄한다.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다시 체험된 감정들에 물든 스탈의 비평은,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어떤 간격(intervalle)의 의식이자 따라서 체험된 시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면, 순진하고 단순하게 이 간격 후에 오는 하나의 반복이 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¹²⁾ 이제 폴레 이후 『루소에 대한 편지』의 거의 모든 해석들은

(*Le romantisme en France au XVIIIe Siècle*)에서, 루소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감정을 한때의 번덕, 피로한 문학의 기교가 아닌 삶의 깊은 이유로 만든 것”은 바로 그라고 명시하고 있다. Daniel Mornet (1970), *Le romantism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Genève: Slatkine Reprints, p. 269.

10) Robert Derathé (1948), *Le rationalisme de Jean-Jacques Rousseau*, Paris: PUF.

11) *Lettres sur Rousseau*, p. 48.

12) Georges Poulet (1998), *La conscience critique*, Paris: José Corti, p. 25.

비평가의 첫 작업에서 의식의 결합을 통한 비평론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시와 차별화가 어떻게 하나의 비평행위를 구성하는지 보여주려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스탈 부인과 루소 사이의 “간격”은, 비평가가 자신이 찬양하는 작가와 자신 사이의 성차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 즉 비평가의 “여성의 본성”¹³⁾을 통해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스탈 부인 고유의 완성과 상실의 동시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낭만주의와의 관련을 암시하는 이러한 동시성이 루소에 대한 “찬사”를 통해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폴레가 최초의 현대 비평가에게서 발견한 “동일시” 과정의 한 측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측면을 더 상세하게 부연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부과되는 일은, 동일한 맥락에서 발견되는 “간격”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무 살 스탈 부인에게 우울은, 노년에서야 자신의 불행을 되돌아보는 루소와 달리, 삶에 대한 여러 목적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견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독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루소에 대한 편지』에서 스탈 부인이 경험하는 우울이 하나의 아이러니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세 번의 회고: 1788, 1798, 1814

과거와 결부된 상실의 감정인 우울이 『루소에 대한 편지』의 쟁점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스탈 부인 자신이 텍스트에 대해 행

13) Madelyn Gutwirth (1971), “Madame de Staël, Rousseau, and the Woman Question”, *PMLA* 86 (1): 100. 『루소에 대한 편지』에서 스탈 부인의 여성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다음 논문도 참고해야 한다. Florence Lotterie (2003), “Une revanche de la «femme-auteur»? Madame de Staël disciple de Rousseau”, *Romantisme* 122, pp. 19-31.

한 세 차례의 회고를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1788년의 첫 번째 「서문」(préface), 그로부터 10년 후 1798년 판본에 붙였지만 1814년 판에서는 삭제한 「일러두기」(avertissement), 그리고 사망 3년 전인 1814년 판에 붙인 두 번째 「서문」(préface)이 그것이다. 적어도 1788년 「서문」에 대해서는 “회고”라는 지향성을 부여해선 안 될 것 같지만, 판본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는 스탈 부인이 원고를 1786년에서 2년 동안 작성했으며, 20부 남짓 만든 초판본에는 서문이 달려있지 않았고, 이 서문은 이후 여러 곳의 요청에 의해 재판을 찍을 때 첨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¹⁴⁾

“루소에 대한 찬사(éloge)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¹⁵⁾ 첫 번째 「서문」을 여는 문장은 책이 속하는 장르가 “찬사”임을 밝히면서, 동시에 기존의 찬사들과 이제 시작되는 찬사의 극단적 차이를 명시한다.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스탈 부인은 자신의 “열광(enthusiasme)의 추억과 인상”¹⁶⁾ 즉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 분석의 방법임을 설명한다. 이렇게 단 몇 줄로 스탈 부인은 플레가 정의한 현대비평의 시작을 알린다. 하지만 비평은 곧장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것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약함의 감정”¹⁷⁾이다. 지성적 힘의 차원에서 찬사의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스탈 부인은 이 장애물을 두 가지 논리로 극복한다. 첫째, 이 극복 불

14) 판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근 편집된 전집에서 편집자 플로랑스 로트리(Florence Lotterie)의 정리를 참고할 수 있다. *Lettres sur Rousseau*, pp. 30-33. 혹은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충실한 요약을 제공하는 다음 글을 봐도 좋다. Gérard Gengembre and Jean Goldzink (2017), “Lettres sur les ouvrages et le caractère de J.-J. Rousseau”, *Madame de Staël, la femme qui osait penser*, Paris: Classiques Garnier, pp. 21-35.

15) *Lettres sur Rousseau*, p. 37. “찬사”가 18세기 아카데미의 장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강조되었다.

16) *Lettres sur Rousseau*, p. 37.

17) *Lettres sur Rousseau*, p. 38.

가능한 격차는 또한 “열광”의 근거다. 격차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상에 대한 감정이 그토록 강렬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시간의 역설적 기능이 확인된다. 어쩌면 시간은 진보의 시간일 것이고, 주체는 정당한 찬사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능력이 발달하길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빼앗지 않을지 누가 알겠는가?”¹⁸⁾ 게다가 지성적 발전의 터전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찬사를 요청하는 감정의 진실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은 때때로 진실까지 해한다. 시간의 파괴적 손길이 항상 오류만 건드리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¹⁹⁾

그러므로 스탈 부인에게 “찬사”란 지성의 부족을 감정의 강렬함으로 채우는 행위이며, 시간은 지성의 완성과 감정의 파괴를 동시에 작용시키는 힘이다. 이것은 단지 유명한 철학자를 비평하며 문학계에 입문하는 젊은 비평가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사법일 뿐인가? 그럴지라도, 이 수사법에는 이미 완성가능성과 상실의 운명이 하나의 원리를 구성하는 스탈 부인 특유의 논리가 정립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상실의 선취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한다. 사유의 길에 들어서는 젊은 문학가는, 아직 불확실한 미래로 가서 상실될 현재를 되돌아본다. 우울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이미 첫 번째 서문의 논리에 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10년 후 총재정부 시기 작성된 1798년의 「일러두기」가, “어떤 깊은 우울”(une profonde mélancolie)²⁰⁾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치적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스탈 부인이 「일러두기」를 정치적인 텍스트로 한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짧은 두 단락에는 혁명의 성쇠를 목격한 비판적 의식의 고

18) *Lettres sur Rousseau*, p. 38.

19) *Lettres sur Rousseau*, p. 38.

20) *Lettres sur Rousseau*, p. 107.

뇌가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서문」에서 문학적 입문자의 자기 정당화가 그랬던 것처럼, 이 글에서도 정치적 수사와 분리되지 않는 어떤 논리가 발견된다.

자신의 데뷔작을 다시 읽는 스탈 부인은 거기에서 “열여덟 살에 쓰인 책의 많은 결함”을 확인하면서, 프랑스혁명 직전 자신을 열광케 했던 “자유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끼고자 한다.²¹⁾ 이 재독서는 과거의 결함을 드러내는 지성적 진보를 확인하는 행위이자, 그러한 결함과 동시적이었던 감정의 강렬함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1798년 「일러두기」의 논리는 첫 번째 「서문」의 논리를 극복하려는 의지다. 스탈 부인은 지성의 진보와 경험의 축적이 반드시 열광의 상실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려 한다. 시간과 함께 과거의 오류와 과오는 더 선명해지고 그에 따라 “회한(regrets)과 추억(souvenirs)”²²⁾이 솟구쳐도, 짧은 시절의 정치적 열정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 이 글에서 “어떤 깊은 우울”이 예감되면서 부정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고, 그런 한에서 1798년 스탈 부인의 정치적 입장이 정의된다.

하지만 앞에서 밝힌 대로 이 「일러두기」는 스탈 부인 자신에 의해 1814년 판본에서 삭제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서문」을 지배하는 감정은 다시 어떤 우울인데, 게다가 그것은 첫 번째 「서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확인된다. 그토록 반대했던 보나파르트의 군림으로 프랑스와 유럽에서 자유의 정신이 말살되고 있으며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믿은 스탈 부인의 정치적 환멸일까? 그런데 정작 1814년 「서문」이 다루는 대상은 사유의 진보와 여성의 운명 사이의 관계다.

이 「서문」에서도 스탈 부인은 『루소에 대한 편지』가 자신의 지적 여정에서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며 시작한다. 다만 그 의미는 시간에 의

21) *Lettres sur Rousseau*, p. 107.

22) *Lettres sur Rousseau*, p. 107.

해 파괴되기 전에 감정을 표현하겠다는 젊은 문학가의 출사표도, 역사가 강요하는 환멸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열광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는 정치적 팸플릿도 아니다. 여기에서 스탈 부인은 이 책에 의해 실험되었던 근대사회의 특수한 주체, 사유하는 여성, 그러니까 그 자신의 운명을 진단한다.

이 운명은 다음과 같은 선명한 공식으로 표현된다. “여성의 운명에서, 그 불멸의 본성상 언제나 고양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쇠퇴를 향해 나아간다.”²³⁾ 스탈 부인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매력을 잃고 사회에서 급속히 추락하는 여성의 지위를 한탄한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야말로 사유가 필요하다. 스탈 부인은 여성이 사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편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여성의 사유는 기독교가 가능케 한, 인간들의 종속관계를 도덕적 관계로 바꾸는 일의 결정적 계기다. 사유를 통해 여성은 자신의 정념을 다스리는 도덕적 주체가 되며, 부부관계는 이해와 소통에 기초한 도덕적 관계가 되고, 사회는 “잘 배운 인형”²⁴⁾이 아닌 활기에 찬 영혼의 윤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 공식의 의미는 사유의 요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1788년의 「서문」과 1798년의 「일러두기」가, 표명되는 주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시간에 따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의 대조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앞선 두 글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바랄 수 있거나, 더 나아가 잃는 것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얻거나 보존할 수 있는 희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사유와 대립하는 감정은 완전히 손상되기는커녕 승화되려 한다. 하지만 말년의 스탈 부인에게 사유의 요청이 절박한 것은, 그것 말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23) *Lettres sur Rousseau*, p. 39.

24) *Lettres sur Rousseau*, p. 40.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공식에서 중요한 요소는 논리가 아니라, 사유를 “모든 것”에 대립하여 홀로 상실의 운명에 맞서는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여성의 사유는 그것이 가져오는 이익보다 더 많은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비판된다. 이 비판은 스탈 부인에게 모든 희망의 토대 역할을 하는 지성의 완성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그런데 스탈 부인은, 두 번째 「서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포기한 것처럼 보였던 감정의 승화를 역설적인 방식으로 복구한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삶의 더 큰 강도는 언제나 행복의 증가이다. 아마 고통은 상당한 에너지를 가진 영혼 안에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자신에게 능력 하나를 더 준 것에 대해 그 누구라도 신에게 감사할 것이다.”²⁵⁾ 여성의 사유가 악과 불행을 유발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감각적 영혼”(âme sensible)이 삶의 “강도”(intensité)를 증가시키는 “능력”(faculté)이기도 하다. 여성의 영혼은, 그러한 감각을 발달시킬 정도로 삶에서 충분히 고통 받았다.

두 번째 「서문」을 마무리하는 악에 대한 이 과격한 가치전복을 확인하면, 젊은 스탈 부인이 전망한 상실과 우울이 일종의 수사법이자 전략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다고 해서 젊음의 치기와 허풍을 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유하는 젊음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스물두 살 스탈 부인은 자신의 데뷔작의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 점을 어렵풋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788년 「서문」은 위대한 철학자와 젊음의 공모를 확인하며 끝난다. “그런데 우리가 루소에게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은 젊었을 때가 아닌가? 미덕을 어떤 정념으로 만들 줄 알았고 열광을 통해 설득하

25) *Lettres sur Rousseau*, p. 41.

길 원했던 자는 이 시기의 자질과 결함마저도 활용했으며 그렇게 젊음의 스승이 되었다.”²⁶⁾

3. 루소: 기원의 감정에서 상실의 우울로

『루소에 대한 편지』는 분량 편차가 큰 여섯 편의 “편지”(lettre)로 구성되어, 각 편지의 비평대상은 (1)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Lettre à d’Alembert*)까지 초기의 철학들, (2) 『신 엘로이즈』, (3) 『에밀』(*Émile*), (4) 정치적 저작들, (5) 음악과 식물학, (6) 『고백』에서 드러나는 루소의 “성격”(caractère)이다. “찬사”라는 명목답게 많은 내용들은 루소의 저작과 사유와 행위에 대한 해명과 정당화이긴 하나, 나름의 비판도 아끼지 않는다. 여러 연구들은 그 자신의 논리를 따르기보다 각 텍스트에 대한 논평에 집중하는 듯한 『루소에 대한 편지』에서 스탈 부인이 문학계에 입문한 정황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를 찾거나, 그가 루소에 대한 주관적 이해를 통해 “열광”, “완성가능성”, “우울”, “여성”의 문제 등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할 관념들을 소개하는 기원의 현장을 목격한다.²⁷⁾

편지들을 관통하여 스탈 부인의 루소를 종합하는 원리가 있지 않을까? 언뜻 보면 스탈 부인도 “전낭만주의”의 선구 루소에게서 감정의 지배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특히 다른 저

26) *Lettres sur Rousseau*, p. 38.

27) 이런 관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두 연구는, 살롱의 배경과 문학계의 논쟁 등 당시 스탈 부인의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의 지적 여정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지만, 아쉬움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않는다. Stéphanie Genand (2017), “Soi-même comme une autre”, *La chambre noire. Germaine de Staël et la pensée du négatif*, Genève: Droz, pp. 121-154; Jean Roussel (1972), “La critique de Madame de Staël”, *Jean-Jacques Rousseau en France après la révolution. 1795-1830*, Paris: Armand Colin, pp. 315-358.

작들보다 “감성(sensibilité)의 운동”²⁸⁾에 기초한 『신 엘로이즈』를 길게 논평할 때 확인되는 것처럼 보인다. 소설에 대한 스탈 부인의 여러 열광보다 더 시사적인 것은 특이한 비판이다. 스탈 부인은 루소의 소설에서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감성에 대한 기이한 관념”을 언급한다.²⁹⁾ 그는 정념으로 인해 과오를 저지른 줄리(Julie)에게 루소가 지나친 침착함을 부여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사랑의 폭력”³⁰⁾을 묘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이런 경향은 철학자 루소를 다룰 때에도 유지된다. 세어볼 필요도 없이 여러 번, 스탈 부인은 영혼에 작용하는 “웅변”의 힘없이는 루소의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마도 과장된 이 체계 한가운데에서 악에 대한 증오와 미덕에 대한 사랑이라는 정당한 감정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고 있다! [...] 그는 영혼에 작용하고, 이렇게 첫 번째 근원으로 더 높이 거슬러 올라간다.”³¹⁾

하지만 신중한 독서는 스탈 부인이 루소의 “천재성”(génie)을, 장 루셀(Jean Roussel)이 말한 대로 “감정적 도약과 지성적 경계(vigilance)의 통일”³²⁾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하여 비평가는 사랑의 정념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신 엘로이즈』를 구해내기 위해, 감정과 사유, 정념과 미덕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감정을 통해 영혼의 관심을 일으켜야 정신을 사유에 집중케 할 수 있고, 미덕에 정념을 뒤섞어야 그 둘 모두를 듣게 할 수 있는데, 루소를 비난해야 하는가?”³³⁾ 오히려 비난의 대상은 이성만으로는 어떤 진

28) *Lettres sur Rousseau*, p. 51.

29) *Lettres sur Rousseau*, p. 64.

30) *Lettres sur Rousseau*, p. 64.

31) *Lettres sur Rousseau*, p. 46.

32) Jean Roussel (1972), p. 330.

33) *Lettres sur Rousseau*, p. 55.

보도 이를 수 없는 현재 인류의 불완전한 상태다. 또한 루소의 “옹변”은 그의 사유의 정확함과 결합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치 문체의 효과가 사유의 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듯이, 마치 체계 전체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옹변을 구성하는 관념과 감정이 정확할 최소한의 필요도 없다는 듯이, 문체를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하는”³⁴⁾ 자들을, 스탈 부인은 용납하지 않는다.

『에밀』은 두 원리의 적절한 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결과다. 교육론을 쓰는 철학자는 사회의 “선입관”으로 막힌 길을 뚫고 “자연적 감정”을 되찾으려 한다. “이런 순간이 온 것은 아닐까? 자연적 감정에서 너무 멀어져 그것이 일종의 발견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때,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세상의 선입관이 그 흔적을 지워버린 길을 되찾기 위해 우리에게 천재적인 한 인간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바로 이 숭고한 노력에 대해, 루소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³⁵⁾ 이를 위해 『에밀』 철학의 정점인 유명한 『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La profession de foi du vicaire savoyard*)에서, 루소는 “자연적 본능에 귀 기울인 후, 반성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성에게 이 본능의 진실을 증명”³⁶⁾한다. 루소 사유의 정수는 이렇게 이성과 함께 혹은 이성을 위해 최초의 자연적 감정을 되찾는 것이고, 이 감정에 기초하여 사회를 비판하고 재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기원의 감정에 닿는다고 해서, 그 감정을 통해 건전한 이성을 회복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영혼에 직접 작용하는 루소의 문체는 그의 사유의 힘을 입증하지만, 그 힘의 이면은 몽테스키외(Montesquieu)와 달리 루소가 “악과 치료법, 목적과 수단을 동시에”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사유를 실행하는 법을 가르쳐 줄” 생

34) *Lettres sur Rousseau*, p. 74.

35) *Lettres sur Rousseau*, p. 69.

36) *Lettres sur Rousseau*, p. 78.

각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³⁷⁾ 그래서 루소의 정치적 저작을 검토하며, 스탈 부인은 루소의 가르침이 실존하는 사회보다는 “처음으로 모이려고 하는 사회에 더 유용한”³⁸⁾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루소를 통해 자유의 원리와 미덕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그것을 실천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의 이름은 “자크 네케르”(Jacques Necker)다.³⁹⁾

또한 루소가 언제나 이성과 감정 사이의 최상의 결합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사유는 종종 길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흔하다. 그리하여 쥘리에게 과도한 침착함을 부여할 때만큼 클레르(Claire)의 입에 무리하게 농담을 올리려고 할 때, 소설가의 구상은 일시적으로 빛을 잃는다. 왜냐하면 루소는 불행에 대한 특유의 감각과 내면적 성향으로 인해 “쾌활하게 쓰는 일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적합한 인간”⁴⁰⁾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탈 부인은 루소의 삶을 평가하며, 대상 없는 감정에 휘둘리는 성향을 동정한다. “그는 오로지 환영에 대해서만 정념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환영이 현실 자체보다 더 강한 폭력으로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⁴¹⁾

37) *Lettres sur Rousseau*, p. 46.

38) *Lettres sur Rousseau*, p. 81.

39) 『루소에 대한 편지』가 출간되던 1788년 말, 네케르는 프랑스왕국의 재무총감으로 복귀하여 왕국의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부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루소의 뜻을 실현할 인간으로 네케르를 연거푸 소환하는 스탈 부인의 태도는 텍스트의 역사성과 정치적 맥락을 구체화한다. 스타로뱅스키(Jean Starobinski)는, 스탈 부인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그가 루소에게서 발견한 감정의 힘에 이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한다. 힘을 증명했지만 주관적이라는 한계에 갇힌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 되기 위한 계기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타로뱅스키는 스탈 부인에게서 감정의 보편화 논리를 확인한다. Jean Starobinski (2012), “Mme de Staël et Rousseau : l'autorité du sentiment”, *Accuser et séduire. Essais sur Jean-Jacques Rousseau*, Paris: Gallimard, pp. 116-134. 이 해석은 우리의 것과 상보적일 것이다.

40) *Lettres sur Rousseau*, p. 65.

41) *Lettres sur Rousseau*, pp. 98-99.

하지만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무너질 때, 루소의 사유와 인격을 비판적으로 탐구할 자원이 제공된다. 루소의 “성격”을 다루는 마지막 편지가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스탈 부인은 제네바시민에게 부여된 “천재성”의 비밀을 알기 위해 장-자크의 기행과 취향을 분석하려고 애쓴다. 이 분석의 필요성은 사실 첫 번째 편지의 첫 문단부터 요청되고 있다. 루소는 사십대가 되어서야 글을 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는 자신 안에 들어가기에는 외부 대상에 너무 속해있었다. 그는 사유하기에는 너무 느꼈다. 그는 사는 것과 반성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⁴²⁾ 루소의 본성은 삶과 사유,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없다고 추정된다. 이로 인해 그에게 젊음과 성년은 분명히 구별되는 두 시기가 된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성에서 멀어지지 않은 채 더 근원적인 감정에 이르는 데 있지 않았는가?

같은 문단은 이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훌륭하게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루소가 사색(méditation)에 전념한 것은, 삶의 사건들이 그에게 미치는 지배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정념의 대상을 잃어버린 그의 영혼이 추상적인 관념과 감정에 온전히 불타오를 수 있는 때가 되어서다.”⁴³⁾ 이 문장에서 스탈 부인은 어떤 사유의 작동원리를 주체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귀속시킨다. 그것은 외부에 대해 주관성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포착된다. 루소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느끼고 있다. 감정은 그의 본성이다. 하지만 시간은 그에게서 감정의 대상을 모두 제거한다. 이제 느낄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뿐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관념, 모든 움직임이 다시 감정의 대상이다. 루소는 더 이상 밖을 느끼지 않기에 안에 대한 더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된다. “추상적 질료, 사유 안에서만 현실성을 갖는 대상에 대한 이성의 거대한 힘”⁴⁴⁾은

42) *Lettres sur Rousseau*, p. 43.

43) *Lettres sur Rousseau*, p. 43.

여기에서 솟아난다.

이 분석은 루소의 “성격”을 파악하는 마지막 편지에서 심화된다. 루소가 『고백』 3권에서 자신의 본성으로 규정된 격정적인 정념과 느릿한 사유의 복합체에 대해, 스탈 부인은 그 작동방식과 결과를 냉정하게 진단한다. 사유의 느림으로 인해 루소는 대상이 이미 지나간 후에 고찰한다. 그런데 “사유의 힘으로, 그는 정념에 빠진다.”⁴⁵⁾ 그는 외부의 기호에 극도로 민감하여, 단 하나의 자극으로 추상적인 추론이 이어진다. “말 한 마디, 몸짓 하나가 그의 가장 심오한 사색의 주제였다. 그는 가장 작은 정황들을 마치 기하학의 명제들처럼 엮어 그가 논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른다.”⁴⁶⁾ 이때 현실 없는 사유와 정념이 기하학적 추론처럼 이어지게 만드는 조건은 대상의 부재와 과도한 상상력이다. 대상 없는 상상력의 삶, 그것이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스탈 부인은 루소의 존재를 규정하는 공식에 이른다. “그는 존재했다기보다는 꿈꾸었다.”(Il rêvait plutôt qu’il n’existait.)⁴⁷⁾

상상력을 통한 부재의 향유는 이렇게 꿈의 이미지를 얻는다. 현실과 괴리되어 꿈에 매몰된 삶은 분명 불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불행한 의식만이 누릴 수 있는 향유가 분명하다. 스탈 부인은 이때의 감정에 “우울”이라는 이름을 준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루소의 음악 취향에 대한 다섯 번째 편지다. 단 세 문단으로 구성된 만큼 도식적인 추론처럼 보이는 이 편지에, 연구자들이 지금껏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루소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두 번째 단락으로, 이 단락은 충분히 미학적 현상학이라 불릴 만하다.

44) *Lettres sur Rousseau*, p. 92.

45) *Lettres sur Rousseau*, p. 90.

46) *Lettres sur Rousseau*, pp. 90-91.

47) *Lettres sur Rousseau*, p. 91.

스탈 부인은 루소의 “노래”(airs)가 “영혼의 상황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우리가 불행할 때에도 부를 수 있는”⁴⁸⁾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루소의 음악은 영혼의 특정한 상태에 호응하며, 불행한 자의 향유다. 이어서 스탈 부인은 루소 음악의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하는데, 이것을 우울의 세 가지 단계로 봐도 좋겠다. 첫 번째 유형 혹은 단계는 “그것을 듣는 사람의 감정에 동참하여, 그에게 그가 느끼는 것의 표현이 되는”⁴⁹⁾ 것이다. 음악과 영혼의 상호 공명은 내면을 감각으로 가득 채워 “거기에 공허(vide)를 남겨두지 않는다.”⁵⁰⁾ 다른 대상이나 감정이 개입할 틈이 사라진 내면은 눈물을 쏟으며 절망이 아닌 “우울”에 잠긴다. 두 번째 유형 혹은 단계는 “황홀경(extase) 안에 잠깐의 틈을 두어” 상실한 것의 “추억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킨다.”⁵¹⁾ 정념의 소용돌이에 빠진 남성은 고요한 유년기 때 불렀던 노래를, 젊을 적 아름다움을 상실한 여성은 옛 연인이 불러준 노래를 떠올린다. 이때 감정의 특징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어떤 “회한”을 느낀다기보다, 그로부터 “쾌락”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회상하는 것이라기보다, 차라리 다시 느끼는 것이다.”⁵²⁾ 세 번째 유형 혹은 단계의 “우울한 노래”(airs mélancoliques)가 있다. 이 노래는 청자를 “그 자신에게 다가가게” 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되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의식에는 “과오”나 “죄책감”(remords)이 없어야 한다.⁵³⁾ 이때 의식은 자신을 채우는 감각에는 “악”(vice)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고, 그러한 감각의 총체인 “자연”에서 “미덕, 희망, 선함”의 “광경”(spectacle)을 본다.

48) *Lettres sur Rousseau*, p. 85.

49) *Lettres sur Rousseau*, pp. 85-86.

50) *Lettres sur Rousseau*, p. 86.

51) *Lettres sur Rousseau*, p. 86.

52) *Lettres sur Rousseau*, p. 86.

53) *Lettres sur Rousseau*, p. 86.

스탈 부인이 구별하는 세 가지 유형의 음악 모두에서, 악과 불행의 공간인 세계는 상실된다. 첫 번째에서는 감각적 “황홀경”에 의해, 두 번째에서는 “추억”에 의해, 세 번째에서는 이념화된 “자연”에 의해 그렇게 된다. 이를 통해 불행한 의식은 각 단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위로 받는다. 각 단계에서 위로되는 의식은 각각 “감각적 인간”(homme sensible), 삶의 한가운데 있는 “남성” 혹은 “여성”, “다정하고 순수한 영혼”(âme douce et pure)이라 불린다.⁵⁴⁾ 이 노래들은 모두 “우울하다”고 지칭된다. 그런데 불행을 향유하는 기술로서 결국 “자연”의 “선함”에 이르게 하는 이 우울은, 사회의 악과 편견으로부터 “자연적 감정”을 환원해내는 루소의 추상적 사유 능력과 호응하지 않는가?

따라서 감정과 이성, 정념과 사유의 결합은 “사색과 우울”의 결합으로 각색된다. 스탈 부인은 계몽주의적 이상으로서의 이원론 극복 기획을 낭만주의적 정조라고 할 만한 묘사로 변형시킨다. 꿈과 구별되지 않는 삶에 이어, 루소의 신체적 양태를 상상하는 스탈 부인의 문장이 의미심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 문장은 루소라는 존재방식에 대한 스탈 부인의 가장 총체적인 정의처럼 보인다. “자신의 무게 혹은 폭풍우로 기울어진 꽃처럼, 사색과 우울이 그의 몸을 구부렸다.”⁵⁵⁾

4. 비평가의 탄생: 방법으로서의 우울

스탈 부인의 분석은 한편으로 그가 루소의 충직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유의 비밀을 주관성의 중의적인 발생론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루소가 가르쳐 준 것이다. “루소는 인간들의 관념의 진보를 얼마나 섬세하게 추적하는가!”⁵⁶⁾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 본능의 단순한

54) *Lettres sur Rousseau*, p. 86.

55) *Lettres sur Rousseau*, p. 90.

조합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천재의 위대한 노력이다.”⁵⁷⁾ 이 발생론이 정신의 진보와 불행의 의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불평등기원론』(*Discours sur l'inégalité*)의 통찰이었다. “숭고한 재능에 기인한 예외적인 이런 성공은 아마도 행복을 대가로 삼는 것 같다.”⁵⁸⁾ 하지만 이 논리를 그 창안자에게 되돌려주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색채를 덧입힌 것은 어떤 “비평적 의식”의 힘이다. 루소는 젊음의 “스승”이지만, 그는 스스로가 아니라 젊음에 의해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젊은 비평가의 비밀은 무엇일까?⁵⁹⁾

사실 루소를 “스승”으로 모시자마자 겹겹의 장애물이 젊은 여성 비평가를 가로막는다. 루소는 문학과 사유가 인간의 행복을 파괴한다고,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이어야 한다고, 젊음은 사유의 시간이 아니라 삶과 감정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에 대한 스탈 부인의 반박은 『루소에 대한 편지』 곳곳에 삽입되어 있다. 아래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된 많은 논문들도 그 내역을 서술한다. 『학문예술론』(*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에 대한 비평에서 스탈 부인은 루소가 제국 쇠퇴의 “동시적 사건일 뿐인 학문의 진보를 원인으로 잘못 보았다”고, “제국의 번영과 인간의 행복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았다”고 비

56) *Lettres sur Rousseau*, p. 46.

57) *Lettres sur Rousseau*, p. 45.

58) *Lettres sur Rousseau*, p. 46.

59) 이에 대해 모니카 보스(Monika Bosse)는 『루소에 대한 편지』를 전체적으로 뜯어 보면서, 어쩌서 편지를 쓰는 여성의 형상이 루소의 또 다른 자서전적 자아가 되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그는 이를 위해 스탈 부인의 텍스트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대화』(*Dialogues*)를 논의에 도입하고, 루소의 자전적 글쓰기들에서 자서전적 자아의 다양한 지위를 체계화한다. Monika Bosse (1990-1991), “«Ce hasard qui m'entraîna dans la carrière littéraire»: les *Lettres sur les ouvrages et le caractère de J.J. Rousseau*”, *Cahiers Staëliens* 42; 29-47. 우리는 반대로 스탈 부인이 재설정하는 “사색과 우울”의 도식 안에서 젊은 비평가의 지위를 따져보려고 한다.

관한다.⁶⁰⁾ 또 그는 『에밀』을 논하며 여성에게도 “영혼의 강력한 힘”⁶¹⁾이 필요하며 여성은 그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젊음의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진 잠재성을 긍정하는 논리다. 『루소에 대한 편지』에서 사유의 효용이나 여성의 본성과 구별되지 않는 이 젊음의 잠재성은, 독자들의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젊을 때 관념들은 때를 지어 온다. 아마도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게 될 모든 관념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직 혼란스럽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는데, 타인의 눈에는 관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⁶²⁾ 젊음은 이미 충분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들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긋지 못하고,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루소는 자신의 젊음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는 우선 기다렸다. 깊은 감정과 추상적 관념들은 이미 그 안에 있었으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보려고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이, 그에게는 그의 모든 사유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을 위해 필요했다.”⁶³⁾ 하지만 시간은 의지에 따라 가속화시킬 수 없다. 특히 그저 삶을 살았을 뿐인 루소와 달리, 젊은 스탈 부인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스탈 부인은 루소의 시간을 분석한다. 루소에게 사유의 조건을 마련해준 시간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루소에게 사회의 시간은 먼저 불행의 시간이다. 시간은 정념은 그대로 둔 채, 정념의 대상을 모두 파괴하고 앗아가는 원리다. 그런데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불행은 그런 불행을 감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효과를 산출한다. 고독 속에서 루소가 “시간, 세계, 삶에 대해 반성한 반면, 어떤 불행한

60) *Lettres sur Rousseau*, p. 44.

61) *Lettres sur Rousseau*, p. 74.

62) *Lettres sur Rousseau*, p. 62.

63) *Lettres sur Rousseau*, p. 43.

여성은 마음까지 부드럽게 파고드는 자연의 고요함을 느꼈을 것이다.”⁶⁴⁾ 그러니 루소를 사유에 이르게 한 불행에 대한 감각이 있다. 예를 들어 『신 엘로이즈』에서 자살을 옹호하는 생-프뢰(Saint-Preux)의 편지가 “형이상학과 사유의 강력한 논증”을 담고 있는 것은, “루소가 자신이 불행하도록 태어났음을 느꼈기” 때문이다.⁶⁵⁾ 불행을 만든 것은 사회지만, 그것을 느끼고 사유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주체다.

불행이 한편으로는 사회적 현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적 현실임이 확인되면, 불행을 더 빨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심지어 주체의 “능력”이기도 하다. 스탈 부인은 불행에 대한 이 감각을 광기와 구별하려고 애쓴다. “루소는 광인(fou)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인 상상력은 착란(démence)에 빠져 있었다.”⁶⁶⁾ 고전주의 시대 프랑스어에서 의미론상 구별되기 어려운 “광기”(folie)와 “착란”(démence) 사이에 스탈 부인은 분명한 선을 긋는다. 상상력의 “착란”을 통해 루소는 “추상적 질료, 사유 안에서만 현실성을 갖는 대상에 대한 이성의 거대한 힘”과 “세계의 인식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기이함”을 동시에 갖게 된다.⁶⁷⁾ 상상력은 외부에서 주어진 작은 기호를 거대한 추상적 관념으로 만드는 힘이며, 심지어 부재조차 하나의 현실로 고정시키는 힘이다. 스탈 부인은 흥분한 상상력에 빠진 루소가 어떻게 자신의 불행을 창조해내는지 묘사한다. 상상력은 불행 속에서 사유를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불행을 만들어낸다. “보편적 증오”에 대한 피해망상은 그 분명한 증거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상상력은 루소 사유의 조건이다. 심지어 스탈 부인은 루소에게서 “지성적 상상력”(imagination intellec-

64) *Lettres sur Rousseau*, p. 101.

65) *Lettres sur Rousseau*, p. 62.

66) *Lettres sur Rousseau*, p. 92.

67) *Lettres sur Rousseau*, p. 92.

tuelle)⁶⁸⁾을 발견한다. “지성적 상상력”은 사유의 조건으로서 특정한 불행에 대한 “능력”이다. 이제 사유는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주관성의 현실이 되고, “사색”이라는 이름에 더 적합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 현실의 감성적 형식은 “우울”이다. 강렬한 정념을 간직한 채 눈앞에 있는 정념의 대상에 시선조차 보내길 주저하는 쥘리는 단지 “어떤 불행한 여성”이 아니라, 우울을 향유하고 존재를 관조하는 여성이다. 스탈 부인은 쥘리가 잃어버린 대상과 “회한” 없이 살아가는 감정을 “또 다른 행복”, “더 우울한” 행복이라고 지시한다.⁶⁹⁾

그러므로 젊음은 사색의 주체가 되기 위해 기다리지 말고, 앞서서 우울해야 한다. 『신 엘로이즈』에 대한 비평을 시작하며, 스탈 부인은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 과도하게 비평대상의 본질을 침범할까 두려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받은 인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이고, 『신 엘로이즈』에 대해 마치 시간이 내 마음을 나이 들게 했다면 했을 것처럼 쓸 것이다.”⁷⁰⁾ 비평가들은 이 문장에서 오직 선배 비평가의 자기 객관화의 노력만을 보곤 한다. 하지만 이 문장의 진정한 욕망은 비유 안에 있다. 비평을 위해 의식은 상상력을 통해 늙고, 마음을 노쇠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문장은, 상상적으로 가속화된 노화와 그로 인한 우울의 힘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신 엘로이즈』 비평의 마지막 단락과 호응한다. 여기에서 스탈 부인은 쥘리의 유연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가 자신에게 일으키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⁷¹⁾을 고백한다. 자신의 감정과 거리두기를 했던 의식이 다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죽음을 앞둔 쥘리의 마음 안에서다. 치유할 수 없는 정념을 확인하면서도 긴 내적 투쟁이 마지막 순간에 허

68) *Lettres sur Rousseau*, p. 46.

69) *Lettres sur Rousseau*, p. 60.

70) *Lettres sur Rousseau*, p. 51.

71) *Lettres sur Rousseau*, p. 66.

락하는 짧은 행복을 즐기는 질리의 언어는 “너무나 우울한” 것이지만, “죽음의 순간 용기보다 불행에 의해 더 확실하게 주어지는 고요함”은 스탈 부인의 영혼을 울린다. 독서의 희열과 상상을 통해 불행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죽음의 침대에 자신을 눕히면서, 스탈 부인은 모든 것을 추억과 이미지로 보는 곧 죽을 여성이 자신의 사유와 감정을 웅장하게 발화하는 소설의 결말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에 대한 비평은, 우울한 행복의 주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비평가의 다음 문장으로 끝난다. “아! 마치 우리 삶의 사건처럼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사유를 운동하게 만드는 독서를 끝내기란 어찌나 힘든지!”⁷²⁾

5. 결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 기대어 『루소에 대한 편지』를 읽었다. 하나는 이론적인 것으로서, 폴레가 묘사한 “비평적 의식”을 텍스트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더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학사적인 것으로서, “전낭만주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의 독서는 두 가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전낭만주의”에 대한 실증적 조사는 그 명칭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의 연속성을 사유하게 한다. 루소 비평가 스탈 부인은 감정과 이성의 종합이라는 계몽주의의 기획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사색과 우울”로 번역할 내적 필연성을 발견한다. 둘째, 이러한 개념적 전환은 근대적 비평가의 탄생을 통해 실행된다. 스탈 부인에게 해석의 혁신을 위한 조건은, 비평가의 존재가 그 혁신을 미리 체화하

72) *Lettres sur Rousseau*, p. 67.

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색과 우울”로 루소를 실험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스탈 부인은 그 자신이 우울한 존재방식을 선취한다. 따라서 비평가의 대상에 대한 “동일시”가 미묘한 것은 동일시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동일시가 아직 없는 것, 자신이 만들어야 할 것에 대한 동일시이기 때문이다. 스탈 부인이 비평가가 되는 것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다. 그리고 1814년의 두 번째 「서문」을 시작하며 직접 말하는 것처럼, 실제적이고 상상적인 많은 희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스탈 부인에게 “문학의 함양(culture)은 서글픔보다는 기쁨(jouissances)을 더 많이 가져다주었다.”⁷³⁾

73) *Lettres sur Rousseau*, p. 39.

참고문헌

【자 료】

- Staël, Germaine de (2008), *Lettres sur les écrits et le caractère de J.-J. Rousseau* (ed. by Anne Brousteau and Florence Lotterie), *Œuvres complètes* (dir. by Florence Lotterie), série I, tome I, Paris: Honoré Champion.
- Staël, Germaine de (1968), *De l'Allemagne*, Paris: GF Flammarion Vol 2.

【논 저】

- Balayé, Simone (1975), “À propos du «préromantisme»: continuité ou rupture chez Madame de Staël”, in *Le préromantisme: hypothèque ou hypothèse?* (ed. by Paul Viallaneix), Paris: Klincksieck.
- Bosse, Monika (1990-1991), “«Ce hasard qui m’entraîna dans la carrière littéraire»: les *Lettres sur les ouvrages et le caractère de J.J. Rousseau*”, *Cahiers Staëliens* 42.
- Genand, Stéphanie (2017), “Soi-même comme une autre”, *La chambre noire. Germaine de Staël et la pensée du négatif*, Genève: Droz.
- Gengembre, Gérard and Goldzink, Jean (2017), “Lettres sur les ouvrages et le caractère de J.-J. Rousseau”, *Madame de Staël, la femme qui osait penser*, Paris: Classiques Garnier.
- Gutwirth, Madelyn (1971), “Madame de Staël, Rousseau, and the Woman Question”, *PMLA* 86 (1).
- Lotterie, Florence (2004), “Madame de Staël. La littérature comme «philosophie sensible»”, *Romantisme* 124.
- Lotterie, Florence (2003), “Une revanche de la «femme-auteur»? Madame de Staël disciple de Rousseau”, *Romantisme* 122.
- Monglond, André (1969), *Le préromantisme Français, t. II, Le maître des âmes sensibles*, Paris: José Corti.
- Mornet, Daniel (1970), *Le romantism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Genève: Slatkine Reprints.

Poulet, Georges (1998), *La conscience critique*, Paris: José Corti.

Roussel, Jean (1972), “La critique de Madame de Staël”, *Jean-Jacques Rousseau en France après la révolution. 1795-1830*, Paris: Armand Colin.

Starobinski, Jean (2012), “Mme de Staël et Rousseau : l’autorité du sentiment”, *Accuser et séduire. Essais sur Jean-Jacques Rousseau*, Paris: Gallimard.

원고 접수일: 2020년 10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0년 11월 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5일

ABSTRACT

Presumed Melancholy:
 Germaine de Staël, *Lettres sur Rousseau*

Kim, Young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size, from two perspectives, the *Lettres sur les écrits et le caractère de J.-J. Rousseau* of Germaine de Staël. One, which is theoretical, is to build, more elaborately and in the concrete reality of the text, the “conscience critique,” described by Georges Poulet to appreciate Mme. de Staël’s literary debut work. The other, that is in the dimension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is to participate in the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préromantisme.” Our reading has two consequences. First,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n “préromantisme,” exemplified by our analysis on Mme. de Staël’s text, can propose a continuity between Enlightenment and Romanticism, despite the incongruity of the title. As an enthusiastic critic of Rousseau, being faithful to the synthesis of “sentiment” and “raison” that is the project of the Enlightenment, Mme. de Staël invents a necessity to translate it into the new synthesis of “méditation” and “mélancolie” in the figure of Rousseau. Second, this conceptual transformation is implemented through the birth of the modern critic. For Mme. de Staël, the condition for this interpretative innov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at the existence of the critic must embody that innovation in advance. To define experimentally the nature of Rousseau as “méditation” and “mélancolie,” Mme. de Staël actualizes in anticipation a melancholic way of being. Therefore, the subtlety of critic’s “identification” with his object is not for the subject’s simple reaction to this identification. Such identification operates between the critic and something that has not yet come into existence, something to be made by the critic. The birth of “conscience critique” relies on this irony, that foresees the era of romanticism.